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8. 17.(월) 0시 이후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산물원종장장	강태완	☎ 760-7200
		업무담당자	양성년	☎ 760-7212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시 키운 딸기묘…우량묘 자금 시대 첫걸음

- 제주산 어미(母)묘 활용 시범재배…9월 정식 · 12월 첫 수확 예정 -

- 제주에서 직접 기른 우량 딸기묘가 올해 처음으로 도내 농가에 정식된다. 그동안 딸기 농가가 육지에서 구입해 오던 묘를 제주가 자체 생산·공급하는 첫 사례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조직배양 기술로 생산한 제주산 우량 딸기묘를 올해 도내 시범농가에 정식한다. 오는 9월 정식해 12월 첫 수확한다는 계획이다.
- 제주지역 딸기 농가는 그동안 재배용 묘 대부분을 도외에서 사들여 왔다.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 탓에 육묘 기간 병해 관리와 환경 조절이 까다로워, 대부분 ‘설향’ 품종 묘를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고 있다.
- 그러나 도외 구입은 농가가 생산 현장에서 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,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묘의 활력이 떨어지거나 병해충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.
- 농업기술원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부터 생산농가와 함께 우량 딸기묘 생산·공급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.
- 지난해에는 사업비 1억 8,000만 원을 들여 도내 4개 농가에 기존 시설딸기 재배시설을 활용한 육묘 기반을 조성했다. 각

사업장에는 육묘용 가대와 냉·난방기, 차열망을 갖추 딸기 묘를 안정적으로 생산·관리할 환경을 마련했다.

○ 올해 3월에는 조직배양 기술로 생산한 우량 딸기 원원묘 6,000주를 시범농가에 공급했다. 시범농가는 이를 증식해 정식용 원묘 9만 주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 딸기 묘는 조직배양묘에서 기본묘, 원원묘, 원묘 순으로 증식된다.

○ 매월 잎 수와 포복경(런너) 발생량, 새끼묘(자묘) 수 등 육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. 정식 이후에는 병 발생 정도와 생육, 수량 등을 다른 지역에서 도입한 묘와 비교해 사업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필 계획이다.

□ 농업기술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기후와 재배 여건에 맞는 딸기묘 생산·관리 기술을 보완하고, 우량묘 생산·공급 기반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.

□ 양성년 농업연구사는 “제주 농가가 도외에서 묘를 구입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딸기를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”이라며 “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묘 생산·관리 체계를 보완하고, 도내 딸기 농가에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